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주 임 신 부	정 재 준	사도요한
보좌 신 부	정 혁	요셉 (청년부)
	이 춘 선	미카엘 (유·초·중·고등부)
전 교 수 녀	박 경 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정은자	한나 (원장)
	정 선 아	세레나 (중·고등부/청년부)
	정 정 아	소화데레사 (유·초등부)
꿀벌유치원	최 향 숙	베로니카 수녀
요셉어린이집	김 아 람	소화데레사 수녀
총 회 장	황 태 영	프란치스코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수녀님, 환영합니다!



정정아 소화데레사 수녀님께서 본당에 새로 오셨습니다. 구로3동 본당을 위해 애써주실 수녀님을 환영하며, 수녀님께서 영육 간에 늘 건강하시도록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알 림

- 02월 24일(목) 19:40 사목협의회 회의있습니다.
- 다음 주(02월 27일)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병자 영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 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유·초등부 미사에 어린이와 가족을 초대합니다.

- 대 상 : 5세부터 초등5학년까지 어린이와 가족
- 미사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장 소 : 소성전

● 재의 수요일 안내 : 03/02(수)

- 회개와 은총의 시기인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이며,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진행합니다.
- 재의 수요일은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육재(만14세부터)와 단식재(만18세 ~ 60세 전까지)를 지킵니다.
 - 성지가지를 가지고 계신 가정은 성전입구 수거함에 02/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 미사 시간 및 재의 예식 안내

새벽 06:30

저녁 7시

● 혼인교리 접수 홈페이지 변경 안내

이전주소(가정사목국)	변경주소(서울대교구 사목국)
ihome.or.kr	http://www.samok.or.kr

●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변경 사항

- 기간 : 2022.01.03~방역 당국의 지침변경 시까지.
- 대성전에서 거행되는 평일과 주일 미사 참석은 **백신 접종 완료 후 180일 이내에 해당하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 미사 참석자는 **백신 3차 접종 확인 도장**을 받은 본당 명찰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백신 접종 미완료 신자 분들**은 주일 교중미사에만 강당에서 참석 가능합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올바른 미사 참례 예절 *

1. 미사 시작 전 도착하기
2. 핸드폰 사용 자제하기
3. 올바르게 성체 받아 모시기

● 다음 주일(02/27)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15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2월 09일 ~ 02월 15일)

교 무 금	6,122,000원
주일헌금	3,461,000원
감사헌금	김금자10만원 한의수50만원 유○○10만원 김희영100만원 이병승 5만원 전을경 5만원 엄기자10만원 김○○ 5만원 신종구 5만원 김형준 3만원 김순엽 1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02/20	유명진	심재순	도현만	최웅조	정재경
02/27	이영민	김영균	김진수	장인근	정홍자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02/20	장인홍	박용환	최영만	이운영	박형순
02/27	최상남	박형순	장인홍	최석준	박용환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상호 간의 선물

133. 삶의 방식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도착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이야기는 개인들 사이 그리고 문화들 사이에 만남의 이야기이기도 하며, 이민자들은 그들이 들어온 공동체와 사회에 풍요로움과 온전한 인간 발전의 기회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자기 나라에 온 다른 젊은이들과 대립하게 만들고, 마치 그들이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을 지니지 않은 것처럼 위협이 되는 존재로 그들을 바라보도록 부추기는 자들의 손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134.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얻습니다. 우리 세상이 피폐해지지 않으려면 오랜 세월을 걸쳐 번창한 다양한 문화들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문화적 고착화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에, 다양한 문화들이 다른 현실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각 사람의 은사를 발견하며,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증진하고, 우리의 다름을 상호 존중 안에서 성장하는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가 자기 문화의 가치를 전수하고 다른 이들의 경험에서 얻은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인내와 신뢰가 깃든 대화가 필요합니다.”

135. 여기서 저는 제가 과거에 제시하던 몇 가지 예시를 들고자 합니다. 라틴 문화는 “미국을 너무나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가치와 가능성을 증진하는 촉매제입니다. 대규모 이주민들은 언제나 결국 어떤 곳의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이탈리아에서 온 대규모 이주민들이 그 사회의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십만여 명의 유대인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문화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주민들이 도움을 받아 통합된다면 그들은 축복이자 풍요로움의 원천이며 사회의 성장을 촉진하는 새로운 선물이 됩니다.”

136. 더욱 폭넓은 관점에서 아흐메드 알타예브 대이맘과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동서양의 우호적인 관계는 분명히 양측 모두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는 효과적인 교류와 대화를 통하여 서로 상대방의 문화로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서양은 만연한 물질주의가 가져온 영적 종교적 병폐에 대한 치유책을 동양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은 그 취약점, 분열, 갈등, 과학적 기술적 문화적 쇠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문화적 요소들을 서양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특성, 문화, 문명 형성에 핵심 요소가 되던 종교적 문화적 역사적 다양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이중 잣대의 정치를 피하고, 동서양 모든 이가 품위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 인권에 대한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